특검수사 뇌관은 '뇌물죄'·'세월호 7시간'

박영수 특검, 수사팀 인선 등 속도…다음주 본격 수사

대기업 출연에 대통령 역할·약물처방 의혹등 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임명 직후 수사팀 인선, 사무실 마련 등 제반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벌써 특검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한 달 남짓 진행한 수사의 연장이다. 검찰이 축적한 수사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검찰 수사 결과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파헤치다가 자체적으로 대상을 정하는 '인지수사'도 가능하다. 이번 의혹 수사의 마무리도 결국 특검 손에 달려있다.

특검법이 규정한 14개 수사 대상에는 일단 빠져있지만,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의 공범으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특검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로 관심이 급속히 쏠려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고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각자 범행을 저지른 '정범'이고, 서로 협력해 실행했다고 보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면서 "대기업들이 거액의 돈을 내게 된 과정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대통령의 역할이 작용한 게 아닌지, 즉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특검은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며 "7시간 문제가 소위 청와대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이 받은 약물 처방을 둘러싼 의혹으로 대통령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대통령 경호실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주사된 약물이) 주치의 허가 없이 반입된 약물이라면 국가 안보를 따지는 경호실(대응)이 말이 되느냐.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려진대로 대통령이 아무 주사나 맞았다면 엄청난 문제"라며 "이는 경호실에서 대통령 보호를 못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일국의 대통령에게 절차 없이 주사를 놓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그는 "당시 간호장교,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소환하고 관련자들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다. 특검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20층짜리 건물 중 3개 층을 특검팀이 사용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여의도로 옮겨 붙은 촛불

탄핵안 발의 불참 새누리 당사 앞 규탄대회

'2일 표결 불발' 야당에도 비난·야유 메시지 쇄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성난 촛불 민심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고 있다.

1차 타깃은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이지만, 탄핵안을 두고 우왕좌왕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향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날아들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사상 최대 규모 촛불집회에서는 이런 민심의 경고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국정농단 공범 새누리당 규탄 시민대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것이라며 합의 집회에 나선 것이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탄핵!'을 외쳤고 당사에 걸린 '하루라도 빨리 국정을 수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창문은 일부 참가자들이 던진 달걀로 얼룩졌다.

'2일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던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구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무대 행사를 지켜보던 중 일부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어수선한 상황이 벌어지자 사회자는 안 전 대표를 향해 "광장의 주인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대구 시민이다"라며 "국민의당은 흔들리지 말고 박근혜를 탄핵하라"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거센 항의에 시달렸다. 청계광장에서 국민의당 탄핵 서명운동에 나선 박 비대위원장에게 일부 시민들은 "똑바로 하라"며 비난했다.

박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항의전화나 문자도 끊임없이 쇄도했고, 결국 박 비대위원장은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집회에서 1000여명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중 여섯 분은 '왜 탄핵을 반대했나', 'DJ처럼 하라'라고 항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SNS 등으로 국민의당을 조직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탄핵정국 강성발언 이재명 지지도 급상승

문재인과 '사이다'·'고구마' 논쟁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 강성 발언으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월 5주차 주중집계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이 시장이 15.1%로 3주 연속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소폭 내렸지만 20.7%를, 반기문 총장은 18.2%를 기록, 문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유지하며 야권 2위를 유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가 서로를 향해 '뼈 있는' 설전을 벌여 주목을 끌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느리고 답답하다는 의미의 '고구마'로, 이 시장이 속이 시원하다는 뜻의 '사이다'로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사이다는 금방 목이 마르다.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을 다소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사이다만 마시면 배가 고프니까 고구마도 함께 먹고, 고구마만 먹으면 목 메니까 사이다도 마시고 이렇게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3일 오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밌게 말하자면 목마르고 배고플 때 갑자기 고구마를 먹으면 체한다"며 문 전 대표의 발언에 응수한 뒤 "목을 좀 축이고 사이다를 마신 다음 고구마로 배를 채우면 든든하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연대의식을 나타냈다. /박지경기자jkpark@

금남로 촛불 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 3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민과 함성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野 잠룡들 일제히 촛불속으로

문재인 광주·안철수 대구·박원순 광화문 집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3일 일제히 '촛불민심' 속으로 파고들었다.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미 점화된 대권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야권의 텃밭인 광주로 향해 호남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운동 서명식'에 참석해 퇴진 서명을 독려한 뒤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현장을 찾아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로한 뒤 비상시국강연회를 가졌다. 이어 대구백화점 앞에서 박 대통령 퇴진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토론회를 갖고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최근 강경발언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화문으로 나와 민주당이 진행한 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민주, 명예퇴진 카드로 뒷거래"

"2일 부결시 대통령에 면죄부…국민의당 탄핵 반대 억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세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일 탄핵안 표결' 의견 일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행태를 작심한 듯 성토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포럼 창립 기념 강연에서 "국민의당 지도부 생각은 탄핵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되어 대통령 권한 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는데, 민주당 대표가 명예로운 퇴진 카드로 뒷거래했다"며 "퇴진 일자에 대해서도 거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2일 표결을 주장했고, 만약 부결되면 국민이 심판해줄 것이라는 게 그쪽 입장이었다"며 "2일 부결됐으면 광화문 촛불이 횃불이 되어 국회로 모였을 것이고, 면죄부를 줘 박 대통령은 더 버틸 테고 국민은 점점 더 지치게 됐을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이날 민주당 비판은 국민의당이 '2일 표결'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9일 표결'로 야권의 의견이 모이자 마치 국민의당이 탄핵을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줘 많은 지지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상황에 대한 해명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는 "저는 당시 상황에서 우린 협조하고 그 책임을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가지게 하는 게 옳다.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1일 발의, 2일 통과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지난달 10일 최초로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12일 100만명이 모인 현장에서도 자랑스레 우리의 주장을 펼치면서 서명운동을 했다"며 "미처 당론을 못 정한 민주당은 굉장히 어정쩡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의원 35명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접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접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7억1천4백
★ [공장]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농공단지내 12m도로접 토지 6,600㎡ 건물 2,579㎡ 감정가 27억5천3백 ▶ 최저가 12억3천3백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24억9천3백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부근 공장지대 감정가 13억3천6백 ▶ 최저가 7억4천8백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접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토지]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주택,과수원 토지 34,000㎡ 매매가 31억(상담후 협의가)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토지]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수익형 추천

★ [건물]광산구 신촌동 상무대로 지상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가 상담후 결정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1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건물] 광주 북구 풍향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원룸 26개, 목욕탕 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9백7십 매매 18억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리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융6억포함),보증금7천 월4백6십 매매13억5천
★ [건물] 광산구 80미터 도로 3층 무인텔 토지 717평 건물 835평 매매가 56억 (융28억)투자 최상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